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12.1.(금) 조간	배포	2017.11.30(목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(02-2100-2860)		담 당 자	이 한 샘 사무관 (02-2100-2862)	
	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장 나 순 익(02-787-0661)			배 동 근 팀장 (02-787-0665)	

제 목 : 산업은행·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

■ 출자사업 운영을 개선하여 혁신적 투자문화 확산 도모

- ①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자금조성 유도
- ② 성장단계별 자금 공급과 기업가치 제고(value-up) 기능 강화
- ③ 운용사 자율제안 확대 등을 통한 역량 있는 운용사 유입 활성화

1 추진 배경

- 산은·성장금융은 중소·벤처 기업 투자를 위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출자를 통해 매년 3조원 내외의 펀드를 조성
 - 리스크 및 장기투자로 민간자금 참여가 쉽지 않은 벤처투자시장 등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견인해 왔으나,
 - 민간참여가 저조하고,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창업·성장·회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
- 정부의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*」에 맞추어 국내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산은·성장금융 출자사업 개선을 추진할 필요

*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 3대 추진방향('17.11월 발표)

-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
- ③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
- ① (자금조성)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운용사 창의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
 - ② (투자) 벤처펀드의 적극적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(value-up)를 위한 비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
 - ③ (회수) IPO 이외에 M&A, buy-out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등 회수수단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 회수 지원
 - ④ (운용사) 혁신기업 육성자로서 벤처펀드와 운용자(VC)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운용사에 위탁을 확대
- 산은·성장금융 정책자금 출자사업 관행을 개선하여 혁신적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민간자금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

2 출자사업 개선방안 주요 내용

1 민간 주도 자금조성 추진 → 정책자금은 민간 부족자금(funding gap)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

- ① 민간출자자를 충분히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「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*」 부문 신설

*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30~40% 이내로 설정하고 의무투자비율 등 출자조건 완화

- ② 전략적 투자자(SI) 및 민간 투자자(LP)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* 제공 등을 통해 민간참여 유인 제고

* 초과수익 이전, 지분매입 옵션, 우선매수권, 인수금융, 후순위 보강 등

- ③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완화*하여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, 출자사업 공모시기를 정례화**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

* (현행) 50~80% → 30~40%

** 예) (상반기)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, (하반기) 정책출자 주도 출자사업

2 성장자금 제공과 기업가치 제고(value-up) 기능 강화

- ①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,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요인*을 완화

* 후속투자를 집행하려는 경우, 출자자의 전원합의 또는 특별결의 요구

- ②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*를 조정하고 인센티브** 도입

* 투자전략 평가시 가치제고 전략 배점 확대, 운용인력 평가시 산업경력 인정 확대 등

** 후속투자, M&A 등 사후관리 실적과 연계하여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 제공

- ③ M&A, 세컨더리 활성화를 위해 회수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,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 운용기간 확대 추진

* 중소·중견기업 M&A, 사업재편 분야(2.5조원), LP 지분 세컨더리 분야 (0.5조원)

③ 경쟁력 있는 운용사 유입 활성화

- ① 펀드 유형·운용사 규모 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던 운용사 리그제*를 단순화(8개→4개)하고 투자전략 중심으로 평가

* (현행) 동일한 유형(PE/VC) 및 운용규모·업력(대형/중형/소형/루키)을 갖춘 운용사를 그룹화하고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

→ (개선) 중견기업 투자 / 중소·중견기업 투자 / 중소·벤처기업 투자 / 신생운용사

※ 역량 있는 신생 운용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운용사는 신생 운용사와 경쟁을 제한

- ② 운용사가 투자분야, 투자의무비율 등 출자조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사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

- ③ 관리보수 중심의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 보수체제로 전환

* 관리보수 수준을 낮추고 성과보수 체계는 운용사가 자율 제안

3 기대효과

□ 운용사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벤처펀드가 출현하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

○ 벤처투자시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후속투자 및 기업가치 제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략적 투자시장으로 전환

○ M&A,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로 신속하고 다양한 회수·재투자가 원활한 선순환 구조 마련

4 향후 추진계획

- ① 12월 중 산은과 성장금융은 상세 출자계획 마련
- ② '18년 출자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별 세부 절차·기준 정비
- ③ '18년 상반기 중 운영체제 정비 완료 및 출자사업 모집공고 추진

붙임 : 산업은행·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

<금융 용어 설명>

- ☐ 지분매입옵션 : 투자기업 지분을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
- ☐ 우선매수권 : 투자기업 지분을 타 출자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옵션
- ☐ 초과수익 이전 : 펀드운용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
- ☐ 후순위 보강 : 정책자금에서 우선손실충당 제공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